

KIA, 비 내려 한화전 휴식

17일 우천 취소...과부하 마운드 충전시간 가져

오늘 문학서 양현중-김광현 양팀 에이스 대결



KIA가 기다렸던 비가 내리던 대로 내려왔다. 17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와 한화의 시즌 3차전이 우천 취소됐다.

이곳저곳 빈틈 많은 KIA에게는 반가운 비가 왔다. 다음주 휴식일 일정과 맞물려 마운드를 정리할 시간을 얻었고, 크고 작은 부상을 호소하고 있는 야수진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이 주어졌다.

마운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김진우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홀튼-송은범-양현중-임준섭-박경태로 출발

을 했던 선발진에는 박경태의 부진 속에 한승혁이 대체 자원으로 투입된 상태다.

15일에 등판한 한승혁은 로테이션 상으로는 20일 SK와의 경기에 다시 출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첫 선발 등판에서 5이닝 1실점 8탈삼진이라는 기대 이상의 피정을 해줬지만 경협 부족의 한승혁은 KIA 벤치 입장에서 내심 불안할 수밖에 없는 선발 카드다.

17일 비가 오면서 송은범을 아낀 KIA는 양현중을 원래 로테이션대로 18일 SK전 선발로 내세운다.

다음 주중 휴식기를 맞는 만큼 KIA 입장에서는 주말 3연전에서 여유있

게 마운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송은범은 물론 임준섭·한승혁 등 선발 자원을 총 투입해 승률 사냥에 총력을 펼칠 수 있다. 휴식기를 감안해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휴식기가 지나고 나면 부상병들의 복귀도 이뤄지게 된다. 좌완 필승조 심동섭과 우완 박지훈이 부상에서 벗어나 1군 합류를 준비하고 있고 김병현도 컨디션 여부에 따라 불펜 가세도 가능하다.

크고 작은 부상으로 컨디션이 떨어진 타자들에게도 단비다. 김주찬이 발바닥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된 가운데 김선빈과 신종길이 각각 허리와 허벅지가 불편한 상태다. 개막 이후 접전이 계속되면서 주전선수들의 피로도 많이 쌓였다.

비라는 반가운 아군을 만난 '호랑이 군단'은 한결 여유있는 마음으로 문학 원정에 나선다.

한편 18일 문학 마운드에서는 KIA 양현중과 SK 김광현 두 좌완 특급 선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양현중은 올 시즌 3차례 등판에서 평균자책점 0.45의 짝물 피칭을 선보이며 2승1패를 수확하고 있다. 평균자책점 부문 1위를 달리는 등 윤석민이 빠진 KIA 마운드에서 에이스로 군림하고 있다.

김광현은 3차례 출격해 3.57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2패를 기록하고 있다. 2패를 안았지만 한화전에서 7이닝 무실점의 환상투를 선보이는 등 예전의 구위를 회복하며 김광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두 선수는 앞서 2007년, 2008년, 2013년 마운드에서 만난 적이 있다. 세 번의 맞대결에서 양현중은 승패가 없었고 김광현은 1승1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홈 3연전 돌입...상위권 간다

광주서 20일 안양과 맞대결

27일 안산·내달 3일 고양전



광주 FC가 운명을 건 홈 3연전 일정에 돌입한다.

광주 FC가 20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챌린지 안양과의 홈경기를 펼친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양과의 올 시즌 첫 맞대결. 일정 변경에 따라 14라운드 경기를 먼저 치르게 됐다.

4경기에서 승점 4점(1승1무2패)을 챙기는데 그친 광주는 리그 8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대전 시티즌과의 원정경기에서는 0-4로 대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부천, 강원에 승점 3점에 앞서있지만 더 이상 물

러설 곳이 없다. 이번 경기에 따라서는 최하위로 추락할 수도 있다.

광주의 목표는 1부 도전. 그 목표를 향한 운명의 홈 3연전의 시작이기도 하다.

광주는 20일 안양전을 시작으로 27일 안산, 5월3일 고양과 안방에서 경기를 갖는다. 4라운드가 끝난 현재 안양 1위, 안산 3위, 고양에 4위에 올라 있다.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며 상위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놓아야 한다. 아직 광주는 홈 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안방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지난 시즌 안양과의 전적은 2승2무1패로 광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매 경기 치열한 중원싸움이 전개됐다. 이번에도 역시 중원이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둔한 루키 이찬동에 눈길이 쏠린

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찬동은 포백 수비라인 앞에 위치한 강한 몸싸움과 깔끔한 커팅 능력으로 최진수가 이끄는 안양의 공격라인을 1선에서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 공격진은 침묵을 깨야 한다. 광주는 지난 총주와의 FA컵에서 두 골을 넣으며 승리를 챙겼지만 리그에서 2경기째 침묵하고 있다. 측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격 흐름이 찬스를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마무리가 아쉽다.

광주는 정규리그 3연전 중간에 FA컵 경기까지 소화해야 한다. 30일에는 부천과의 FA컵 32강 경기까지 예정되면서 죽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위기의 광주가 안양전 승리와 함께 기분 좋은 홈 3연전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월드컵서 주목해야할 아시아 선수 선정

ESPN "돌파·공격성 좋아" 일본 혼다게이스케 등도 뽑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2·레버쿠젠)이 해외 매체가 꼽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주목해야 할 아시아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 전문매체 ESPN에서 아시아 축구를 담당하는 존 듀어든은 17일(한국시간) 손흥민을 혼다 게이스케, 가키타니 요이치로(이상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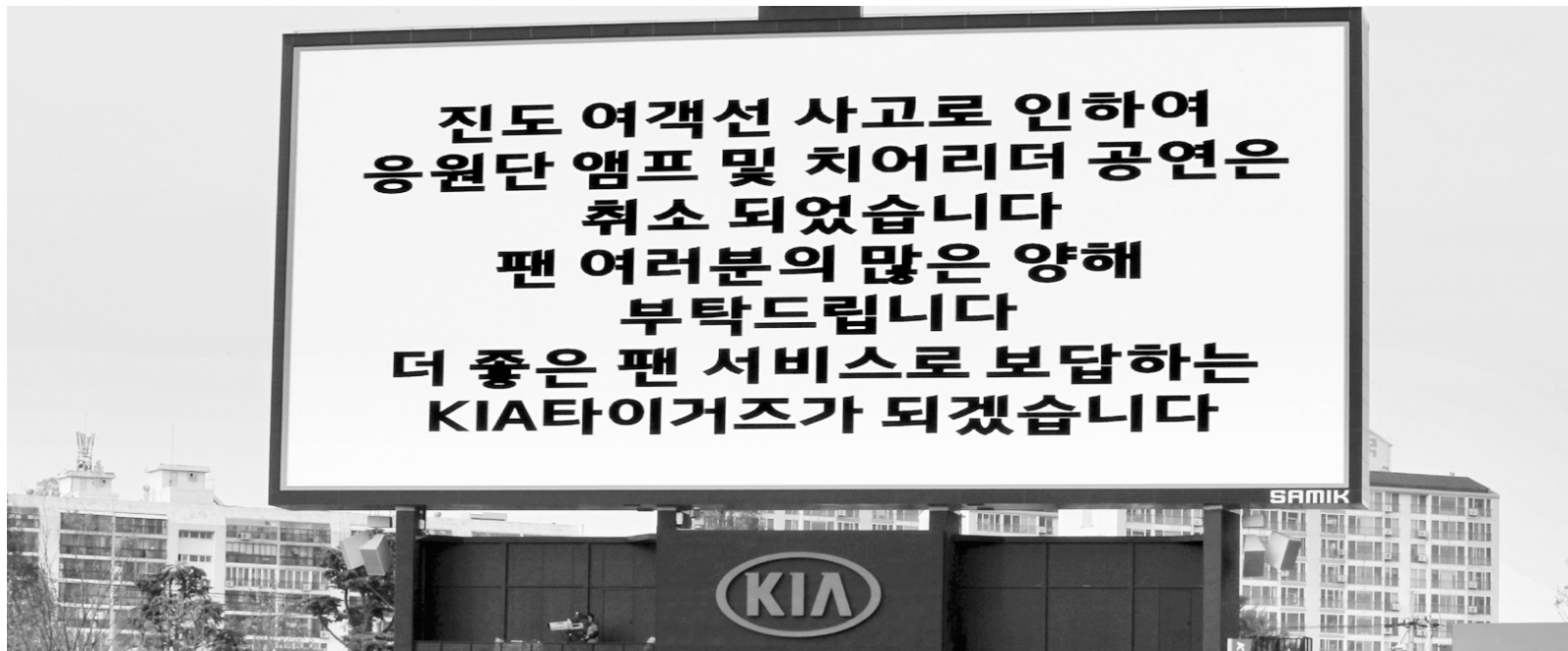
알리 카리미(이란) 등과 함께 이번 월드컵에서 눈여겨볼 선수로 꼽았다. 듀어든은 "박지성과 가가와 신지는 매우 뛰어난 팀플레이어들이지만 화려한 개인기로 멋진 골을 만들어서 눈길을 끄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다"면서 이들과 달리 개인의 능력 자체로 매력을 풍기는 아시아 출신 축구선수들을 언급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해 "비록 최근 별 볼 일없는 레버쿠젠 소속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몫을 다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지성과 달리" 자기 진

영에서부터 수비진을 뚫고 질주하면서 돌파해 슈트를 날리는 선수"라며 "컨디션만 좋다면 이 선수는 실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의 공격적인 성향을 강조했다. 가장 돋보이는 아시아 선수로는 혼다(AC밀란)를 지목했다.

듀어든은 "유럽의 변방인 CSKA 모스크바에서 4년을 보내면서 다소 시야에서 멀어졌다"면서도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이 코트디부아르, 그리스, 콜롬비아와 한 조에 속해 그가 재능을 펼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협뉴스



KIA는 지난 16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 앞서 전광판을 통해 무응원 경기에 대해 일리며 응원 없이 경기를 진행했다. (KIA 타이거즈)

세월호 침몰 사고...응원 멈춘 그라운드

KBO·KFA 응원 자제 당부 KIA 문학에 응원 가견 안해

주말 그라운드에 응원 소리가 멈춘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경기시 행사 및 응원자제를 당부했다. 사고 발생 당일인 16일 한국프로야구위원회가 각 구단에 응원자제

를 요청한 데 이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7일 "19일과 20일에 열리는 K리그 클래식 6경기와 K리그 챌린지 4경기 등 총 10개 경기장에서 행사 및 응원을 자제하고 득점 후에도 선수들의 화려한 골 세레머니, 폭죽, 음악, 영상 효과를 자제할 것을 구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일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안산과 고양의 K리그 챌린지 경기는 취소됐다. 안

산 구단은 지역 학생들의 회색이 발행한 만큼 고양과 합의해 엠프를 연기했다. 미뤄진 경기는 추후 재편성된다.

KIA가 18일부터 문학에서 열리는 SK와의 주말 3연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는 등 프로야구 각 구단들도 주말 응원전 없이 경기를 진행한다.

한편 응원 자제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 16일 롯데와 NC의 경기가 열린 사직구장에서 부적절한 응원이 이뤄져

논란을 빚었다. 이날 롯데 응원단은 자체 요청에도 과도하게 엠프를 사용하고 뱃노래 등의 응원가를 통한 응원전을 펼치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에 조치한 응원단장이 SNS에 사과글을 올린 데 이어 롯데 배재후 단장이 직접 나서 제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삼성 응원단도 대구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호각과 북을 이용한 단체응원을 하며 빈축을 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야구협회-JK상조 상호 협력 MOU 체결

광주야구협회(회장 나훈·왼쪽 4번째)가 17일 (주)JK상조와 협약을 맺고 협회 임원 및 소속 초·중·고·대 16개 학교 지도자 및 학부모들의 가족의 부고시 정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JK상조배 고등·대학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야구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야구협회 제공)

톡톡 튀는 디자인 기능 아이디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취향, 감각에 맞춰 저희 |주|제일에스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골프용품 전문점
|주|제일에스지

창사 62주년